

함평군, 농업경영체 등록 추진

농업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복지혜택 못 받는 농가 발굴 지난달 농업경영체 현황 조사 등록시 건보료 감면 등 혜택

전남 함평군이 관내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함평군은 1일 “요건을 갖췄으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아 농업인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를 선제적으로 발굴, 등록을 추진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함평군은 지난 10월 한달간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농지원부 기준 관내 9269세대 농가 중 총 8860세대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



함평군청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409세대를 미등록 추정세대로 간주하고, 이 세대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거쳐 서류 미구비 등으로 등록을 못한 농가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은 국민건강보험료 감면(사업소득에 따라 감면 비율 22~50% 차등 적용), 전남 농

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함평군은 위의 혜택에서 누락된 군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등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농가에 대해 등록 절차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이상의 군수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한 분의 군민이라도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에 대해 몰라서 못 받는 군민이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수리·수문설계시스템, 활용 만족도 높아

농어촌공사, 민간에 무료 개방

도와 중요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민간에 무료 개방한 수리수문설계시스템(K-HAS)의 민간 사용자 활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수문설계시스템(K-HAS)은 공사가 수리시설 설계를 위한 수문량 분석 및 수리해석이 가능하도록 공사가 한 세기 이상 축적해 온 기술을 전산화한 시스템이다.

2016년 민간 무료개방 이후 현재까지 약 400여개의 민간 기업과 학술단체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 왔으며 사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공사는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올해 3월 개선된 프로그램을 개방했다.

개선된 프로그램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공사는 50여 개의 민간기업과 학술단체에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의 업무 활용

교육 참가기관 중 설계분야 기관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분야 25%, 시공분야(9.2%)와 연구분야 순이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업무처리에 있어 중요하다는 답변이 94%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생들은 설계효율성 산정, 관개수요량 산정, 배수개선 침수분석 등 민간에서 누적이된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농업분야 수리수문관련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 검토할 수 있는데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관련 기술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을 건의했다.

이에 공사는 내년 교육과정에서는 프로그램 활용 심화 과정 및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 등을 추가하는 한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분야별 활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 기초강좌를 제작할 예정이다.

/전남=김태수 기자

“마, 뿌리 보다 잎에 항산화물질 많아”

경북도농업기술원 연구 결과 시기별 기능성 물질 함량 변화

경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단마, 둥근마의 대사체 연구결과에서 뿌리보다 잎 조직에 더 많은 항산화물질이 함유돼 있으며 시기별 기능성 물질함량의 변화 양상을 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북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에서 표준화된 마의 부위별 원료를 제공했고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체과 김정구 박사와 건국대학교 이충환 교수의 생리활성물질 생합성에 관련된 전사체와 대사체 연구를 통해 이뤄졌다. 잎은 뿌리에 비해 항산화활성은 1.7~2.2배, 페놀성 항산화물질의 함



마 잎

량은 3.6~4.1배 높았다. 또 잎에서 항산화물질의 함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8월 하순이었다. 잎 조직 100g당 단마 53mg, 둥근마 38mg의 페놀성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항산화활성이 높은 대표작물인 토마토 과실 100g당 페놀성 항산화 물질 함량이 최대 60mg인 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버려지는 마 잎에서 톤당 300~500g의 페놀성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

국내 마 재배면적은 733ha이다. 주당 경엽의 무게는 적어도 250g 정도로 국내에서 마 재배 부산물로 얻어지는 잎 조직의 양은 1만5000t 정도로 추산돼 식품원료로의 이용이 기대된다.

이번 공동연구 결과는 SCI급 해외 학술지인 Plants에 논문게재 됐으며 유용물질 탐색에 관한 후속 연구를 계속 수행할 방침이다.

/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전남 에듀택시 이용자 수 ‘두 배 꺾침’

전국 최초 원거리 통학학생 지원

전남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한 에듀택시 이용자 수가 3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에듀택시는 전남교육청이 2019년 원거리 통학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학생 통학지원책 중 하나다. 1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중심 교육활동과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2019년 에듀택시를 도입했다.

같은 해 5~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 전남 21개 시·군으로 전면 확대했다.

교통이 취약한 읍·면 지역 거주 초·중학생 중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통



무안 일로초교 학생들이 에듀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학거리가 2km를 초과하고, 통학버스(에듀버스 포함) 승차시간이 1시간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택시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택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남=김태수 기자

신안군, ‘다이아몬드 제도’에 낚시천국 조성

약 25억 국가재원 지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어·패류 서식 환경이 좋은 ‘다이아몬드 제도’ 해역에 매년 약 25억원의 국가재원을 지원 받아 다양한 인공어초(테트라형, 다면체형 등)를 투하하여 수산생물의 산란과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은-암태-안좌-팔금-장산-신의-하의-도초-비금도 등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 섬들이 모여 다이아몬드 제도라 불린다.

신안군은 최근 노대도, 우세도 등 다이아몬드 제도 해역에 이중돛형(어류형, 240개), 방사형(해조류형, 252개) 인공어초 투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낚시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집중육성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신안군에서는 민선7기 부터 ‘22년까지 1단계로 인공어초 1,000개를 목표로 투하하고, ‘24년 3단계까지 3,000개 추가 투하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최근 신안군에서는 처음으로 조달청 혁신제품인 인공어초 50개를 투하할 계획이다.

/전남=안행주 기자 abcd@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수묵을 그리는 사이’ 전시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군수 전동평)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연계 전시로 동아시아 수묵의 명작을 만나는 ‘수묵을 그리는 사이’ 전시를 오는 2022년 2월 1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하정웅 선생이 기증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의 수묵화와 이우환 작품 등 3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기존에 선보였던 서양 현대미술 작품과 다른, 동아시아의 수묵화로 하정웅 기증품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동양화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월북한 정종여 작품이 눈길을 끈다. /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영양군, 2023년도 국·도비 선제적 대비

제1차 전략보고회 개최

영양군은 202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제1차 전략보고회를 1일 개최했다.

정부와 경상북도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국·도비 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양군은 2023년도 신규사업 24건에 건의액 1,064억원(국비1,034억, 도비30억), 계속사업 33건에 건의액 612억원(국비522억, 도비90억)으로 총 57개 사업에 대한 건의액 1,676억원(국비1,556억, 도비120억)을 목표로 경북도,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방문, 지

역구 국회의원과의 연계한 국·도비 확보 추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신규사업은 ▲ 교정시설 건립사업 ▲ 6차 산업 융·복합 체험직판장 건립 ▲ 양항 미네랄 약수 관광지 개발사업 ▲ 영양배드민턴장 건립사업 ▲ 일월산자생화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 '23년 면단위(중규모)LPG 배관망 사업 ▲ 신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마령산하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 영양동부2지구 지구단위계획용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 표범의 땅, 영양국립시설 유치 ▲ '선바위夜 놀자'감성조명 설치사업 등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부스타샷 더 안당긴다...“6개월 간격 그대로” /사진 뉴시스
▲ 국수분 “염전노예 의혹, 전담수사팀 편성...집중 지휘”

▲ 서울 지하철서 쓰러진 60대男, 직원·승객이 심폐소생술 구조
▲ 한번 “김여준 편파방송 TBS 감사 필요” 오세훈 상대 주민소송



▲ ‘동창생 협박 성착취물 판매’ 10대 고교생 징역형
▲ ‘일상회복’ 자가격리도 줄인다...“통보후 14일→10일로” /사진 뉴시스